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이종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성탄 감사 메시지

기쁘다 우리 구주 오신 날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담임)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를 섬기시며
부족한 종과 함께 지난 한 해 열심히 달려오신
서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용서의 계절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2005.12.25



지난 한 해



이성득 목사

올해는 축복과 감사의 한 해였습니다. 위임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서울교회 온 성도들이 예배당 헌당이라는 역사적 이정표에 마침표를 찍은 감격과 은총의 한 해였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오며 땀 흘리고 수고한 성도님들에게 뜨거운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돌아보니 광음처럼 지나가는 세월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뇌리에 떠오릅니다. 부족한 종과 함께 믿음의 여정길을 함께 가는 동역자들과, 먼 거리 마다 않고 열심 다해 충성하는 7.8교구 식구들, 한국교회 갱신연구원 목회자 세미나를 뒷바라지 한 귀한 봉사 의 손길들, 최상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멀티미디어단 형제들, 교회신문 순례자를 위해 머리 싸매며 수고하는 편집 기자 분들, 신앙의 계대를 위해 교회교육 현장에서 땀 흘리는 초등부 교사선생님들의 모습이 한 분 한 분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정 목사

2005년은 헌당과 새로운 비전을 시작케 하신 큰 영광의 아름다운 해였습니다. 먼저 세밀히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신 위임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달렸다고보다 보여주시는 사람 앞에 서 있었습니 다. 섬겼다고보다 섬김을 받았습니다. 사랑했다고보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르쳤다고보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세워주었다고보다 세움을 받았습니다. 한 해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부족 한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동역자들과 성도님들의 포근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올해는 감사에 앞서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도록 세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1, 2 교구의 착한 일꾼들과 가족들, 전도회와 선교회(특히 안드레와 루디아의 신실한 회원들, 70인전도대의 충성스런 각 팀원들, 좋은 유치부 교사들, 아름다운 신혼가정부 교사와 가정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윤영국 목사

2005년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한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에 동참하신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께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예배위원회와 찬양위원회, 13.14교구, 중등부와 디아스포라부등 모든 충성스런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요 한 가족이며, 내 사랑, 나의 자랑입니다. 헌신과 충성으로 섬긴 서울교회가 바로 주님의 기쁨이요 자랑이라 믿습니다. 다가오는 2006년도 믿음의 반석위에 기도로 지으며 비전으로 달리는 서울교회의 사명 앞에 모두가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맛을 느끼며, 멋지게 충성하고, 예수님 믿는 자의 흥함과 복됨을 증거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한상은 목사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먼저 지금 이 시간까지 저의 삶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심방 때마다 정성껏 맞아주시고 모든 일에 배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11.12교구 성도님들, 헌신적으로 교구를 섬기며 많은 도움을 주셨던 교구장 간사님들을 비롯한 교구일꾼분들께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해진 내용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충실하셨던 소요리문답부 성도님과 교사님들, 온갖 곳은일들까지 포함해 필요한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담당해 주신 주부대학과 비전2020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어리고 경험도 적은 교역자지만 늘 초청하시고 배려해 주신 스테반회, 엘리야선교회, 에스더전도회의 모든 분들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더욱 크신 은혜로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식 목사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누구보다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5, 6교구 식구들!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가슴 뭉클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 가장 앞장 서서서 애쓰시는 교구위원회 장로님과 간사님들! 특별히 성경필사를 위해 주야로 애쓰심에 말로 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입시에 찌든 아이들을 온 가슴으로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고등부 선생님들, 우리 주님께서 큰 위로를 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웠던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만나 뜨거운 가슴으로 올 1년을 함께 했던 청년부 선생님들과 사랑하는 지체들, 그 뜨거웠던 여름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리고 마음이 벅칩니다. 저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함께 한 시간들은 소중한 복된 순간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서명철 목사

2005년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대학부의 모든 지체들이 믿음으로 한 해를 달려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학부 내의 활동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 모든 지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도학교가 16기까지 진행되면서 금년에도 70인 전도대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9, 10교구의 모든 다락방 식구들과 수요일어린이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혜영 전도사

올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감사가 큰 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헌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주역은 다름 아닌 살롱권사회 회원을 비롯한 우리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은 조국이 경제난으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때 눈물의 기도와 희생의 헌물을 바치신 분들이십니다. 이 분들 중 육신의 연약함으로 오랫동안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헌당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야말로 올해의 가장 큰 감사일 것입니다.

또한 전국에 계신 목회자를 정성을 다해 섬기시고 서울교회 모든 곳에서 소리 없이 손과 무릎으로 섬기신 권사회 회원 여러분의 젖은 손을 만져드리고 싶습니다. 전화 한 통화면 달려와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셨던 상조부회원들, 70인전도대는 물론, 교회 안팎의 모든 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목요중보기도모임, 40명이 넘는 교사들이 부장 장로님을 중심으로 언제나 한 목소리로 섬김을 다한 새가족부 교사들, 인도네시아 쓰나미 지진 해일 피해 지원을 필두로 호산나전문대학건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제의 손길을 펴게 된 한 해였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임규현 목사

하나님의 은혜로 호산나장애인학교 개설과 에바다부가 아름다운 연합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특히 교회행사가 있을 때마다 동참해 주시고 바쁜 신데도 시간을 내어주신 에바다부 성도님, 의사소통이 잘안되어도 이해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보살펴주신 온성도님과 에바다부 교사 모든분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서울교회 에바다부 가족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의의 면류관을 받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에바다부 성장을 위해 매주 목요일 전도를 위해 봉사하신 집사님과 아낌없이 지원과 사랑을 주신 이종은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이름없이 빛도 없이 기도와 지원을 주신 서울교회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성탄과 새해에도 주님 은혜가 온 가족위에 충만하시고 건강과 소망하시는 일들이 흥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훈 목사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봉사한 필그림 단원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성실한 여러분들을 볼 때 한 분 한 분이 귀하게 쓰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유년부 교사 선생님들, 선생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가끔씩은 '죽어도 좋을 만큼' 기쁘기도 했습니다. 3교구와 4교구의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임 첫 심방 중에 겸손하게 함께 예배드리던 장면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은퇴 권사님들의 신앙적인 모습들은 저에게 큰 귀감이 되셨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한 해였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서울교회 10

1. 헌당

서울교회는 창립 14주년인 11월 27일 대치동 새 예배당 헌당식을 가졌다.

지난 2000년 성탄절에 입당한 뒤 약 5년만이다. 교회는 올해 헌당을 준비하는 의미로 <헌당감사 14대 행사>를, 선교사 20명 파송했고 암송필사 성경을 제작, 봉헌 했으며 서울교회 칸타타를 지어 발표하고, 장애인 전문학교를 설립하는 등 감사의 행진을 이어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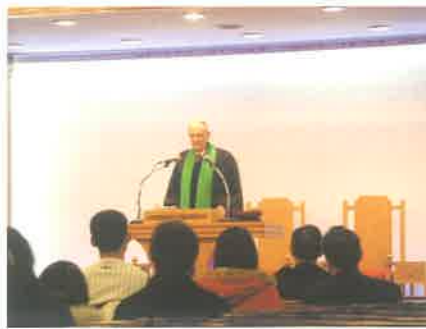
2. 선교활동 강화

올해를 세계선교 원년의 해로 선포한 우리 교회는 4월에 세계선교대학을 개설해 10주간 운영했고 11월 21일에는 제1회 서울교회 일일선교대회를 열었으며 올해 총 20명의 선교사를 파견했다.

이밖에 군복음화를 위해 매년 우리교회가 집례하는 육사세례식과 함께 2월 23일에는 해군사관학교 졸업예배를 우리교회 주관으로 드렸고 또 지난 1월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 세계선교협의회에 가입하는 등 올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다.

3. 영어예배 시작

지구촌 시대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영어예배를 시작했다. 2월 6일 11시 20분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영어예배는 킨슬러 목사가 설교를 맡았다. 킨슬러 목사는 평양출생으로, 한국선교에 평생을 바친 분이다. 영어예배 설교내용은 별도로 주보 한 면을 할애해 게재하고 있고 예배를 위해 예루살렘 찬양대가 조직돼 매주 찬양을 드리고 있다.



4. 새번역 주기도, 사도신경 각 교단총회 채택 시작

우리 교회가 발의한 주기도, 사도신경 새번역안이 국내 각 교단 총회가 채택하는 절차에 들어가 6월 기독교 성결교단이 채택한 것을 비롯, 대부분의 교단이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2년 서울교회가 발의하여 서울 강남 노회를 거쳐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새 번역을 해달라는 헌의가 상정된 지만 3년만의 일이다.

그러나 정작 새번역안을 발의한 당사자인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 채택이 되지 않아 아직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함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5. 서울 암송필사성경 봉헌

신구약 성경 전 장 전 구절을 암송, 필사해서 만든 성경책이 교회헌당에 맞춰 하나씩 봉헌됐다. 암송, 필사작업은 흥해작전 시작일인 지난 6월 6일 시작해 광복절인 8월 15일 종료됐다. 여기에 동원된 성도 수는 1852명(연인원 2050명)으로 고사리손의 주일학교 학생부터 연로하신 권사님과 환우들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성도들이 망라됐다.

두장씩 써서 완성한 대형 성경 2권은 전시판과 보존판으로 만든 뒤 표지를 성도들이 만든 십자수로 장식하고 언약궤 크기의 크리스탈 상자에 넣어 교회에 보관하는 한편 축색판을 따로 제작해 참가자명과 세계 유명대학에 배포했다.

3대 NEWS



6. 현당감사 어린이 백일장 사생대회

처음으로 서울교회 어린이 백일장 사생대회가 10월 9일 한티공원에서 개최됐다. 현당감사 14대 행사 가운데 하나인 이 행사에는 유치부에서 초등부까지 어린이 292명이 참가했다.

서울교회를 소재로 글짓기와 그림그리기 부문으로 나눠 재능을 겨룬 이번 대회에서 글짓기 부문 조호정 어린이 등 모두 35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7. 현당 기념 칸타타 발표

우리 교회는 현당을 기념해 칸타타<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를 11월 25일 현당 감사 찬양 페스티벌때 발표했다. 이종윤 목사가 작사하고 박정선 장로가 작곡한 이 칸타타는 현당을 기념해 만들어진 것으로, 입당때 지어진 <열렸다 하늘문이>에 이어 서울교회 자체 칸타타로 두번째 곡이다. 모두 10개 부분으로 짜여진 이 곡에는 천지창조때 세워진 에덴동산의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서울교회에 이르기까지 이어져오는 심오한 교회론을 엮어놓았다.



8. 3개 교회 초청 연합찬양제

현당을 기념해 우리 교회는 지난 11월 13일 3개 교회를 초청해 연합찬양제를 가졌다. 찬양제에는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새문안교회의 새문안찬양대와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인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 그리고 우리교회와 형제교회인 소망교회 베다니 찬양대가 초청돼 우리교회 임마누엘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서를 가졌다.



10. 장애인을 위한 호산나 전문대학 방과 후 학교, 대안학교

서울교회는 3대 비전 가운데 하나인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집 건립 계획의 일환으로 교회 내에 장애인을 위한 호산나 전문대학 방과 후 학교, 대안학교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속에 방치된 정신지체 발달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호산나 학교는 내년 3월 개강해 5개 과목에서 전공자를 선발하고 7명의 교사와 전문직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9. 북한 인권과 신앙자유를 위한 활동 강화

북한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돌아보고 이들의 신앙의 자유를 촉구하기 위한 노력이 율한해 이어졌다. 특히 11월 10일 광화문에서 열린 UN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찬성촉구 촛불기도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력부대로 나섰다. 이날 기도회에는 이종윤 목사가 '누가 강도만난자의 이웃인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고 우리교회 대학, 청년부 젊은이들이 찬양을 드렸다. 또 12월 12일에는 우리교회에서 북한인권과 신앙자유를 위한 국제기독교대회를 열리는 등 북한의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한 기도와 행동이 이어졌다.

성탄의 기쁨

만왕의 왕 아기 예수님

신동기 권사(12교구)

말씀이 육신되어
만삭된 몸 풀 곳 없어
베들레헴 작은 골
말구유로 오신
아기 예수님

찬란한 별빛 따라
밤길 달려온 목동들
엎드려 아가께 경배하고
구주가 나셨네
구주가 나셨네

가슴 가슴마다
복 치고
거리 거리마다
종 울려퍼지는
천사들의 합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죽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룩한 밤

빛으로 오신
만왕의 왕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그 빛이
우리 생명으로
영원히 타오르게 하소서



-김민철(편집부)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이 추운 계절에 어떻게 지내고 있니 북쪽 친구들 아

이곳엔 아직 겨울방학은 안했지만 성탄절 기쁨으로 친구들 모두 들떠있는 기분인데...

12월 25일이 되면 아기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들을 죄에서 건지시려고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너희들도 이런 복된 소식을 잘 알고 있지 모르겠지만.....

아기예수님 태어나신 생일날이 바로 성탄절이야. 우리 이곳 친구들은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 노래와 춤과 여러 가지로 준비하여 성탄절 이브 날 저녁 모두가 모여 예배드리고 아주 기쁘고 재밌게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도 한다. 우리 어린이들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는 산타 할아버지(착한 아이에게 선물 주시

는 분)가 멋진 선물도 주시거든. 너희들은 어때니? 어른들 말에 의하며 그곳은 이런 복된 소식을 맘껏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던데... 이곳에 많은 분들의 기도처럼 하루 빨리 너희들과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기쁨을 같이 축하했으면 좋겠다. 친구들아 겨울이 매섭게 춥고 힘들지만 그래도 따뜻한 봄날이 있듯이 우리 모두 따뜻한 봄날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자. 오늘밤도 잠들기 전 통일이 빨리되어 너희들을 하루빨리 만나길 기도하며 따뜻하고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길 또다시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박지원 (초등부)
Merry Christmas

사랑하는 을씨

살롬~울란바타르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을 너의 모습을 생각하니 내 가슴이 뜨거워진다. 2002년 서울교회 단기선교팀이 몽골에 도착해서 사역을 지원할 울란바타르 한인교회를 방문했을 때 네가 이끄는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에 압도되었던 그 느낌 아직도 잊을 수 없다. 9박 10일간의 분주하고 힘든 일정 가운데에서도 을씨 너는 언제나 순종과, 희생, 헌신 그리고 때로는 재치 있는 모습으로 울란바타르 주민들과 서울교회 선교팀을 섬겨주었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너를 포함해서 몽골의 새벽이슬과 같은 청년들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 몽골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었어. 나는 이 곳 한국에서 한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통일되는 비전을 향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오 나의 형제!! 을씨, 몽골민족과 한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땅 끝까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여 모든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비전 따라 전진하는 우리가 되자.

2005년 12월 21일

한국에서 최요섭



로니아~

1년이 넘게 지난 지금, 여전히 해맑은 웃음으로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겠지?

8월이 아닌 12월의 지금. 방글라데시의 모습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한국의 12월은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가슴 벅찬 설렘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슬람 문화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선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맞이할지...

마음 놓고 기뻐하지도 찬양하지도 못하겠지?

방글라데시 단기선교에서 너희를 만나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방글라데시 국가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

그 중에서도 처음 너희를 만난 날 너희에게 점심을 먹여줄 때 마음속으로 울며 기도한 것이 있어.

"이 아이들이 이 밥을 먹고 배가 부르듯이 이들의 영혼과 마음 이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써 살아가기 힘든 나라에 살지만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손으로 밥을 모아 너희들 입에 넣어줄 때, 난 이 사진에 찍힌 순간.

내 맘과 내 입술은 남들 모르게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아이들에게 주는 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씨앗이 이 아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과 함께 하여주세요... 이 아이들의 상처받은 영혼들 다 씻어주세요." 라고...

사랑하는 로니아~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들이 방글라데시 땅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큰 소리로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날까지 계속 기도할게...

서울에서 한나가 ...
Merry Christmas♡

성탄의 기쁨

빈방 있습니까?

서명철 목사

아일랜드 사람들은 성탄전야에 창문에 촛불을 켜둔다고 합니다. 그것은 거처할 곳이 없는 나그네를 위하여 빈 방을 준비해 두었다는 표시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던 날 머무실 방이 없어 구유에 누웠던 일을 생각하며 머물 곳 없는 나그네를 영접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그들은 그 밤에 자기 집에 머문 나그네에게 웅숭한 식사를 대접한 후, 다음 날 떠날 때는 여비까지 마련해 주어 보낸다고 합니다.

일찍이 4세기 안디옥교회의 감독 크리소스토름은 성탄전야에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응접실을 마련하십시오. 침상을 놓고 식탁을 놓고 촛대를 마련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묵으실 방을 준비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의 방이다. 이 방

은 그 분 묵으로 따로 내어놓은 것이다’라고 하십시오. 비록 지하실의 보잘것없는 골방이라도 그 분은 언짢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와 ‘미사’(mass)가 합쳐진 말입니다. ‘미사’란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복음의 문화 수용’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한민족의 문화를 수용해야 하고, 중국의 그리스도인은 그들 민족의 문화를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3대 비전 중의 하나인 ‘문화의 기독교화’입니다. 머무실 방도 없이 구유에 오신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 성탄절을 지키는 참된 의미입니다.

안식년을 맞으며

영적 충만의 기회가 되기를...



윤찬오 장로 (10교구)

기쁘다 구주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성탄의 아침을 맞아 조용히 생각해봅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천하고 가난한 한 여인의 몸을 빌어 누추한 마굿간 말구유에 낡은 천 강보에 싸여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代贖物)로 주려함이라’(막 10:45)는 말씀이 연상되었습니다.

다. 불탄 포도병을 갖고 타다가 남은 부지깥이 같은 쓸모없는 죄인을 당신의 거룩하신 피 값으로 세우신 몸되신 서울교회에 장로로 청지기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안식년을 맞게 된 오늘의 이 시점.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섬기는 종의 삶을 산 자인가 자문해봅니다. 이 물음에 내 진정 머리 숙여 자비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크신 용서를 바랍니다.

그 숭한 세월을 나태와 게으름으로 낭비하였으며 종의 종된 신분을 망각하고 목이 곧은 자로 군림하였으며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소외되어 울고 있는 형제를 못 본 체 외면하였습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종하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구하는 말씀의 순종과 기도를 등한시 했으며 내 자신의 정욕과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불의하고 불충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2005년 또 한 해를 무거운 짐을 남겨놓은 채 아쉬움 속에 보냅니다. 새롭게 맞이할 2006년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 11:29)는 말씀을 표어삼아 온유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감사하며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주신 사명, 내 북에 메인 십자가 섬김의 도리 그 멍에를 무겁다 불평하지 않고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메고 갈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님, 역사와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영적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는 충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함

권사 은퇴 · 장로안식년, 하반기 전도상 시상, 주간성경공부 수료

2005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는 오늘 찬양예배시간은 다양한 행사로 이어진다. 먼저 평생을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기도와 섬김의 도리를 다하시다가 교회 헌법과 서울교회 규정에 정한대로 정년이 되어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우리교회 은퇴 권사로 모시고, 2006년 일 년 간 안식년을 맞이하는 장로님들을 위한 권사 은퇴식과 장로 안식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2005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생명 구원의 침병으로 전도에 힘쓴 성도들을 시상하는 전도상 시상과 매주일 주부와 함께 배포되는 주간성경공부를 수료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은 시무권사이신 김혜경, 김연옥, 송옥혜, 홍광숙, 주옥환, 인천희 권사 6분이며, 안식년을 맞는 장로님들은 민순구, 윤찬오, 이완형, 임훈규 장로 4분이다.

또한 하반기 전도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시

상기준은 5명 이상 전도자이며 하반기를 기준으로 하되 상반기에 수상하지 않은 성도로서 연간 5명 이상 전도한 경우는 포함하여 시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간성경공부 수료자는 40회 이상 주간성경공부를 마친 성도로 다음의 명단을 참조하기 바란다.

<후반기 전도상>

- 전도대상 : 박이선(박옥,박정임) : 69명(연간 148명)
- 전도상 : 김은순(박천희) : 26명
- 김찬진(구귀순,박영숙) : 21명
- 김혜중(이해순) : 20명
- 최규조(은기장,박태선) : 14명
- 임명숙(서희숙) : 12명
- 김 옥(남현주) : 10명
- 서경애(한상준,김금준) : 10명
- 전하미(김은태) : 8명
- 장정화(이창희) : 7명
- 이현주(곽미숙) : 7명
- 유승순 : 7명
- 이상은 : 6명
- 최성희(신정순) : 5명
- 서문석 : 7명
- 김동진(김미성) : 5명
- 탁경준 : 5명

<주간 성경공부 수료>

- 주간성경공부 시상자 40회 이상자 - 147명
- 교목부서 - 고인진, 고정숙, 김재혁, 신봉하, 이성직, 전숙향, 주중태, 최해진
- 1교구 - 교육자, 국산옥, 김광룡, 김연희, 박정실, 서경애, 송경옥, 오종원, 이인숙, 임옥근, 홍순복, 홍일성, 최규준
- 2교구 - 배은희, 손현순, 안창휘, 오종례, 이복규, 이웅진, 이자혁, 정봉준, 조미현, 최난수, 최형열, 한명순
- 3교구 - 김유경, 김현정, 배재승, 이경구, 이봉규, 이순례, 이영희, 이재봉, 이혜순, 임분도, 임인숙, 전정숙, 탁경준
- 4교구 - 김복녀, 김혜경, 박우옥, 유영석, 윤복순, 이승민, 장경자, 조옥식, 홍광숙
- 5교구 - 김순인, 남옥진, 박창희, 박수남, 유후자, 윤용근, 이광열, 이병현, 이운영, 임선희, 채경희, 최근자
- 6교구 - 김경옥, 김희진, 박정수, 서영세, 윤숙희, 이영희, 임순자, 장양일, 최경애, 한금희, 하인숙, 황보추자
- 7교구 - 김숙행, 김영준, 윤은식, 정영택, 함은희
- 8교구 - 김영정, 여현정, 이봉선, 임윤자, 채덕희
- 9교구 - 김경애, 김진숙, 송옥혜, 유 신, 이부자, 조상희, 최정숙, 황옥순
- 10교구 - 김경희, 박연순, 윤찬오, 이영희, 진선자
- 11교구 - 이두원, 이민희, 이승준, 이옥희, 이홍기, 전배호, 조옥성, 조정옥
- 12교구 - 김진중, 김인숙, 김형택, 남정열, 윤정식, 이동수, 이형희, 정희순, 황영옥
- 13교구 - 김동진, 김미경, 김신애, 김영숙, 김은태, 김해란, 노현자, 박순복, 박영순, 박영란, 손성실, 송인숙, 신도성, 윤태욱, 이금순, 이소영, 이순희, 장정옥, 전하미, 조동원, 주화인, 최정옥, 최순복, 함인호
- 14교구 - 김명실, 김옥순, 김종자, 박종숙, 박진희, 유기찬, 이명순, 이선희, 정미연, 정전주, 최나준, 최태욱

2006년 농어촌100교회 후원 작성 명단

| 번호 | 이름 | 구좌 | 번호 | 이름 | 구좌 |
|----|-----------|-----|----|----------|-----|
| 1 | 강낙훈, 심상희 | 1 | 51 | 양준경, 이인숙 | 1 |
| 2 | 강석조 | 0.5 | 52 | 에스더 여전도회 | 3 |
| 3 | 강승용, 서경애 | 1 | 53 | 여유현, 양미숙 | 1 |
| 4 | 고아라, 고요한 | 1 | 54 | 예사모 | 0.5 |
| 5 | 고유원 | 0.5 | 55 | 오유식, 이봉규 | 1 |
| 6 | 곽숙, 전용택 | 1 | 56 | 오정수 | 1 |
| 7 | 권사회 | 2 | 57 | 오지열, 하숙 | 1 |
| 8 | 김경희 | 1 | 58 | 오형철, 신동기 | 1 |
| 9 | 김광신, 이인선 | 1 | 59 | 우상태, 방승희 | 1 |
| 10 | 김관진, 왕경애 | 1 | 60 | 원용규, 박이선 | 1 |
| 11 | 김금준 | 1 | 61 | 원홍범, 김영희 | 1 |
| 12 | 김대호, 남순덕 | 1 | 62 | 원희숙 | 0.5 |
| 13 | 김동봉 | 0.5 | 63 | 유승현 | 1 |
| 14 | 김명옥, 오병호 | 1 | 64 | 윤봉준, 김명화 | 1 |
| 15 | 김병호 | 0.5 | 65 | 이갑진 | 1 |
| 16 | 김복녀 | 1 | 66 | 이강인, 허숙 | 1 |
| 17 | 김사무엘, 정경월 | 1 | 67 | 이강진, 송미령 | 1 |
| 18 | 김삼연 | 1 | 68 | 이건모 | 1 |
| 19 | 김상철, 최원자 | 1 | 69 | 이남성 | 1 |
| 20 | 김상태, 김숙자 | 1 | 70 | 이명구, 문옥일 | 1 |
| 21 | 김석범, 이은희 | 0.5 | 71 | 이복규, 한명순 | 1 |
| 22 | 김선자 | 1 | 72 | 이영기, 이영숙 | 1 |
| 23 | 김성준, 김선영 | 1 | 73 | 이정수, 최경분 | 2 |
| 24 | 김영남, 배병이 | 1 | 74 | 이준호, 이은희 | 1 |
| 25 | 김영주, 이해순 | 1 | 75 | 이홍재 | 1 |
| 26 | 김재근 | 1 | 76 | 임경락 | 1 |
| 27 | 김창애 | 1 | 77 | 임홍식, 신선주 | 1 |
| 28 | 김종자, 박진희 | 1 | 78 | 장명순 | 1 |
| 29 | 나미용 | 1 | 79 | 장애희 | 1 |
| 30 | 노문환, 장정화 | 1 | 80 | 전기설, 원영애 | 2 |
| 31 | 노병호, 홍지나 | 1 | 81 | 전수자 | 1 |
| 32 | 노송성, 이영옥 | 1 | 82 | 정동학, 김복순 | 1 |
| 33 | 노인숙 | 0.5 | 83 | 정원기, 이주희 | 0.5 |
| 34 | 마리아 여전도회 | 4 | 84 | 조명준 | 1 |
| 35 | 민혜정 | 2 | 85 | 조순엽 | 0.5 |
| 36 | 바울선교회 | 2 | 86 | 주동재, 김동진 | 1 |
| 37 | 박경옥, 이말숙 | 1 | 87 | 주영도, 오가연 | 1 |
| 38 | 박은영, 김혜연 | 1 | 88 | 최광성, 이정연 | 1 |
| 39 | 박정수, 김경옥 | 1 | 89 | 최난수 | 1 |
| 40 | 박찬성, 심명숙 | 1 | 90 | 최순애 | 1 |
| 41 | 박태선, 김조일 | 1 | 91 | 하영수, 박정순 | 1 |
| 42 | 박희 여전도회 | 3 | 92 | 하인선, 남태순 | 1 |
| 43 | 손영호, 경은숙 | 1 | 93 | 한광파, 유성임 | 1 |
| 44 | 손혜인, 손희서 | 1 | 94 | 한나여전도회 | 1 |
| 45 | 순례자 | 1 | 95 | 한승집, 최미아 | 1 |
| 46 | 스데반회 | 5 | 96 | 홍순복 | 1 |
| 47 | 신용식, 김신영 | 1 | 97 | 홍승전, 황정임 | 1 |
| 48 | 신종진, 김희진 | 1 | 98 | 김영우, 김양숙 | 1 |
| 49 | 안성현, 유숙인 | 0.5 | 99 | 김영주 | 1 |
| 50 | 안흥희, 전화진 | 1 | | | |

<다음 주 계속>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성탄절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일은 기쁘고 감사한 명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우리교회는 성탄절을 맞아 교회내외에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쳤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가브리엘 찬양대가 준비한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로 감사하며 성탄을 축하하게 된다.

송구영신 예배

-새해 첫날 0시에-

신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새해 0시 예배가 모든 성도들의 참여로 진행된다. 12월31일(토) 11시 30분에 소등을 하게 됨으로 성도들은 사전에 자리에 앉아 새해를 위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한다. 이번 0시 예배시간에는 신년감사헌금을 바친다. 또한 주일 낮예배 시간에는 성찬예식을 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출발한다.

예·결산 특별 제직회

2005년도 결산과 새해예산을 심의하는 특별제직회가 오늘(25일) 찬양예배 후 2층 본당에서 갖는다.

교회학교 졸업 및 수료식

우리교회 교육1국(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과 2국(중등부, 고등부)에 속한 학생들의 졸업 및 수료식이 오늘 1부 예배 후 부서별로 있다. 등반되는 학생과 졸업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한다.

등정

- 이종윤 목사는 30일(금) 총회 주재위원회에 참여한다.
- 개업 : 김재근 집사 안분선 권사(10교구) King's Kech 도곡동 우성캐릭터 199 오피스텔 315 T.3462-0273 성행주 성도 최옥희 집사(13교구) 은마세탁 T.566-3407
- 득남 : 이승훈 성도, 양경실 성도 가정(14교구) 박광일 전도사, 이현옥 선생 가정
- 주간 식당 봉사 : 한나전도회(12월 25일) 당회원(1월 1일)
- 금주의 식사 : 김재근 집사 안분선 권사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연말연시 행사계획

| | |
|--------------------------|--|
| 12월25일(주일) 오전 5시 낮 | · 새벽예배 · I II III 부 성탄감사예배, 교회 학교 졸업식 및 수료식 |
| 오후 5시 | · 성탄감사음악예배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가브리엘 찬양대) |
| 찬양예배 후 | · 권사은퇴식, 장로안식년, 전도시상, 주간성경공부시상 |
| 26일(월) 오후 6시 | · 예결산 특별제직회 |
| 27일(화) 오후 6시 | · 70인전도대 총회(801호) |
| 29일(목) 오후 7시 | · 찬양위원회(502호) |
| 30일(금) 오후 7시 | · 예배위원회 총회(101호) · 순결서약식 오리엔테이션(101호) |
| 31일(토) 오후 10시 | · 송구영신 촌극대회 (신청마감:12월25일) |
| 오후 11시30분 | · 소등(참회와 결심의 기도와 소망 중에 예배 준비) |
| 1월1일(주일) 0시 낮 | · 송구영신 예배(신년감사헌금) · I II III 부 예배(성찬식), 공동의회(III부 예배 후) |
| 오후 5시 | · 순결서약식(13세 이상 미혼 남녀, 순결반지) |
| 3일(화) 오전 7시 | · 서울강남노회, 지역인사 신년하례회(801호) |
| 10일(화) 오전 11시 | · 총회 군종목사, 군종사관후보생 연합헌신예배(101호) |
| 9일(월) -14일(토) 새벽5시 | · 2006년 청지기 수련회 |

신년부터 주중식사는 매식

신년부터 주중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식사는 1인 1식에 2000원씩 매식을 하게 된다. 교역자와 직원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모두 매식을 하게 되며 식권을 사용하여 배식 창구에서 음식을 받게 된다. 식권을 사전에 구입하지 못한 성도는 창구에 비치된 수거함에 현금을 투입하고 배식을 받는다. 식권은 수시로 사무국에서 판매한다. 수익금은 식당관리와 구제 및 선교비로 사용한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 |
|-----|---|
| TV |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
| 라디오 |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기독교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 인터넷 |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연말연시에 예·결산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2. 임명받은 일꾼들이 성령충만하여 사명자로 섬기도록
3. 교회학교 학생 1만명 이상, 100명 이상 선교사, 사랑의 집 건설케 하소서
4. 정직하고 바른 국가 사회가 되도록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간 |
|-------|---------------|
| 주일예배 | I부 오전 9시 |
| | II부 오전 11시20분 |
| | III부 오후 2시 |
| 찬양예배 | 주일 오후 5시 |
| 영어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 |
| 수요예배 | I부 오전 11시 |
| | II부 오후 7시 |
| 금요기도회 | 오후 9시30분 |
| 새벽기도회 | 매일 새벽 5시30분 |

■ 교회오시는 길

